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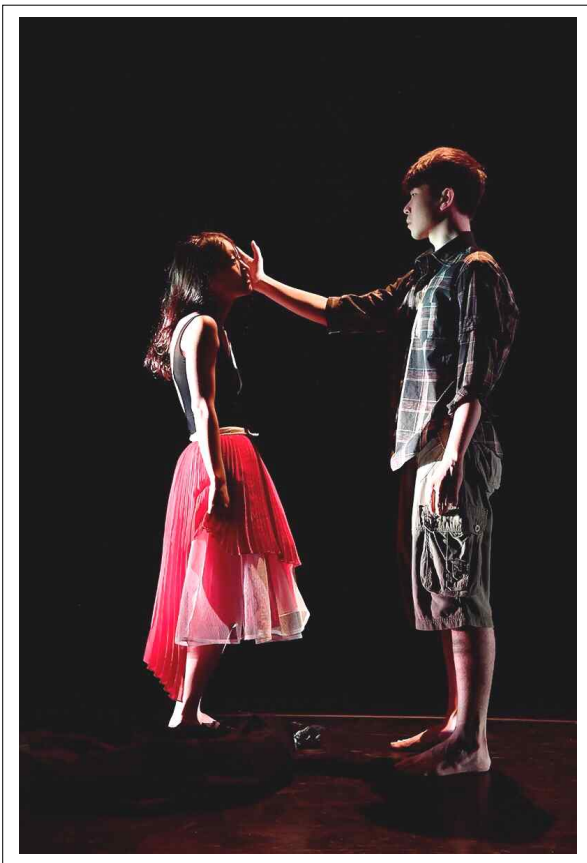
황지영의 작품을 평론한다

Review of the work of Ji-Young Hwang

황지영, 최성옥*
충남대학교*

Ji-Young Hwang, Sungok Choi*
*Chungnam National Univ.,
Chungnam National Univ.*

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본 연구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무용 평론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예술작업의 결과인 동시에 개인의 일상기록으로 기록학적 가치가 아주 높다. 무대 위에 올려진 후 동시에 사라지는 무용공연은 동영상, 프로그램,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공연 후에 대한 기록은 공연평론과 리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안무한 <더미(Dummy)>작품

에 대한 공연 평론에 대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무용공연이 일회성의 순간예술이므로 기록과 보존이 어렵다. 이러한 일회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무가는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고 자신의 작품의도를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 구현하는데 있어서 보들레르의 시 『파리의 우울』 중 '가난뱅이의 장난감'이라는 내용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리서치 과정과 동시에 더미가 떠올랐다. 더미(Dummy)가 갖는 사전적인 다른 개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품을 구현하는 데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져주는 동시에 다양한 움직임 리서치가 가능했다. 특징적인 것은 능동과 수동적인 움직임과 무대의 공간과 무대장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했다.

「더미Dummy(2017)」 2017년 6월 29일 대전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21세기현대무용연구회가 주최하는 뉴댄스페스티벌 차세대공모전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작품 <더미(Dummy)>는 권력이라는 주제로 무지와 무기력함을 능동과 수동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충돌인형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더미(Dummy)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습으로 감정이 없이 움직인다. 작품의 중반부에서는 점차 움직임이 고조되면서 권력이 폭력이 된다. 초반부에 여자무용수는 부푼 치마와 머리에 망을 쓰고 있지만 중반부로 갈수록 머리망은 벗겨지고, 스스로 치마를 하나씩 벗는다. 관절 마디의 구부러짐과 조종하거나 조종되어지는 긴장감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여성무용수가 입고 있는 부푼 치마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후반부에 백스테이지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보여지는 쌓여져있는 산 더미의 무대장치는 작품에 큰 의미를 갖게 한다.

1) 작품내용

가난뱅이의 장난감

굉장한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임자처럼 산뜻하고, 니스와 금을 칠하고, 자춧빛 옷을 걸치고, 깃털과 유리로 온통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제

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철책 반대쪽 길 위, 영경귀와 썰기풀 사이에 또 하나의 어린이가, 피죄하고, 허약하고, 그을음처럼 새카만, 빈민굴의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꼬마가 살을 박은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찌르고 흔들고 건들어 먹는 그 장난감이란 한 마리의 산 쥐였다! 그 애의 부모는, 아마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으리라, 일상의 생활 자체로부터 장난감을 끌어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어린이는 똑같은 하얀 이빨을 내놓고 형제처럼 서로 웃고 있었다.

2) 안무의도

Dummy는 마네킹, 꼭두각시, 로봇의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반면에 '바보'라는 뜻이 있다. "더미(Dummy)" 작품은 '권력'에 대한 물음으로 권력이 갖는 무지와 무기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예방도 선지식도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3) 기술 사항 (무대, 조명, 음향, 비디오 등)

여자 무용수는 작품의 중반부에 부풀어져 있는 치마를 벗는다. 후반부에 또 한 겹의 치마를 무대 위에 벗어놓는다. 무대 위에 옷 더미들이 널브러져 있다. 초연당시 대전에 위치한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극장의 막, 출연자 출입구 등을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하였다. 공연 전 무대공간 백스테이지 뒤에 잡보루를 사용해 옷과 함께 쌓아놓은 옷더미 일부가 보이다가 전체의 산더미가 보이도록 하였다. 조명은 초반 부에 2번의 Cut in과 out의 암전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음향은 백색소음의 효과음인 장작타는소리와 Constellations(Balmorhea)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3. 작품 평론

〈더미(Dummy)〉에서 안무자이자 무용수인 황지영은 남자파트너 유승호에 의해 마네킹이나 기계인형처럼 조정된다. 여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다가도 다음 순간 남자에 의해 휘둘리고 차단되고 압제된다. 이러한 움직임 원리에서 깊은 탐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미세하게 끊기는 차가운 느낌과 이를 받쳐주는 부드러운 느낌은 각각 여자와 남자의 움직임을 특징화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생의 어울림을 보여준다. 여기에 무대장치, 조명, 의상, 음악까지 어우러져 절대 권력에 의해 야기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주제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황지영이 한 단계 높은 창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보다 가치있게 다가온다.

심정민(무용평론가), 댄스포럼, 8월, 2017.